

매년 3월이면 상장회사들이 직전연도 사업실적을 발표한다. 올해도 삼성 현대 등 많은 기업이 2015년도 재무제표를 신문에 공고하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런데 신문에 공고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까지 본 코너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연결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 무슨 의미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일반회계기준이고 연결 포괄.. 등은 국제회계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국내 모든 상장회사들이 2011년부터 따르고 있다. 오늘은 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해 공부해 보자

연결재무제표가 뭐지?

■ 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회계기준은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 회계기준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존의 일반회계기준(GAAP)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즉 모든 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손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에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른다.

셋째 기존의 회계기준은 법과 같이 엄격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 회계 처리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준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다.

■ 연결재무제표 작성원리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모회사)와 종속회사(자회사)의 사업실적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연결시켜) 재무제표이다. 지배·종속은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A사는 B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지배회사에 합친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 지분을 자본의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 다음 유가증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다음 A, B사의 사례를 통해 작성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① A사가 농산물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100억원을 출자받아 설립되다.

② A사는 장난감 수입 판매회사인 K와 공동으로 각각 20억원(80%), 5억원(20%)을 출자해 판매법인 B회사(자본금 25억원)를 설립하다.

③ A사는 농산물 70억원어치를 수입해 B사에 100억원에 외상 판매하다.

자산		부채	
현금	10억원	자본	
매출채권③	100억원	자본 ①	100억원
자회사주식	20억원	당기순이익③	30억원
자산총계	130억원	부채와 자본총계	120억원

자산		부채	
투자유가증권④	25억원	매입채무③	100억원
상품 ③	100억원	자본	
		자본금 ②	25억원
자산총계	125억원	부채와 자본총계	125억원

자산		부채	
현금예금	10억원	자본	
투자유가증권 ④	30억원	자본금	100억원
상품	70억원	비지배지분 ⑥	5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 ⑤	5억원
자산총계	110억원	부채와 자본총계	110억원

④ B사는 출자금으로 들어온 현금 25억원을 주식(투자유가증권)에 투자하다.

⑤ B사는 농산품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

위 사례에서 A사와 B사의 개별재무상태표는 각각 <표1> <표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첫째 A사 개별재무상태표의 자회사 주식 20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B사의 자산(125억원)과 부채(100억원)를 A사의 자산과 부채에 합친다. 이때 B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25억원으로 A사 자산에서 삭제된 자회사 주식이(20억원)보다 많다. 이 차이는 K의 지분이므로 자본의 비지배지분(5억원)으로 표시한다(⑥). 둘째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A사가 B사에 판매한 농산물은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③거래는 모두 삭제한다. 즉 A사의 매출채권 100억원, B사의 매입채무 100억원, A사의 당기순이익 30억원을 삭제하고 B사의 상품 100억원을 70억원으로 줄인다.

셋째 공정가치 평가다. 만일 B사의 투자유가증권 25억원어치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연말에 30억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유가증권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면서(④)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에 5억원을 반영한다(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은 연결재무상태표가 된다.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 5억원은 K의 지분, 기타포괄손익 5억원은 실현되지 않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다. 물론 100% 자회사라면 비지배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연결순이익은?

사정이 바뀌어 B사가 A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100억원어치를 120억원에 모두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물론 내부거래③은 모두 제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B사는 자산이 12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을 20억원 올리게 된다. 결국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와 함께 농산물을 70억원에 수입해서 120억원에 판매했으므로 총 50억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물론 50억원 중 4억원(20억원의 20%)은 외부 투자자인 K의 지분이다.

따라서 A사 연결재무상태표는 바뀌게 되는데 그 중 자본은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금 100억원
비지배지분 9억원(5억원+4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 5억원
지배기업소유주당기순이익 46억원
 (A사 이익 30억원+B사 이익 중 A사 지분 16억원)

또 포괄연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연결당기순이익 50억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6억원, 비지배지분 4억원)
기타포괄이익 5억원
총포괄이익 55억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1억원, 비지배지분 4억원)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소유주당기순이익 또는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6억원이 일반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실현된 당기순이익인 셈이다. 다음 주부터는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평가를 공부해 보자



박주병 한경경제교육연구소장 jbpark@hankyung.com

테셋 경영학 연습문제

[문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 ① 대기업 ② 수출회사 ③ 상장회사 ④ 지주회사 ⑤ 수입회사

[문2]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다. 나. 투자유가증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엄격한 기준으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①가 ②나 ③다 ④가나 ⑤나다

[문3]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회사의 순자산 중 외부 주주지분이다
 ②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외부 주주지분이다.
 ③ 지배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 등 미실현이익이다
 ④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외부 주주지분이다.
 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외부 주주지분이다.

[정답과해설]

- ③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회사들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 ② 미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회계 처리의 큰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주의다.
- ② 비지배지분은 종속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 중 외부 주주지분이다.